

전북대 조삼연 연구원, 한국세라믹학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조삼연 박사 후 연구원(물리학과·지도교수 부상돈)이 최근 열린 2022 한국세라믹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인 '양승연연구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라믹학회는 국내 재료 분야를 대표하는 3대 학회 중 하나로, 국내 소재 및 부품 산업 발전에 관한 지식의 소용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반 세션 및 특별 심포지엄, 소규모 연구회 워크숍, ACEBS 한국학계 심포지엄을 포함하여 약 80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조삼연 연구원이 수상한 양승연연구원상은 요업학회 등 10개 학회 중 하나로, 학회 발전기금으로 수여되는 '양승연' 중 하나로, 세라믹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룬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최우수자 1명에게 수여된다.

이 연구는 인체동작을 이용한 압전 발전기 연구에 새로운 구동 메커니즘을 제안한 것으로, 웨어러블 압전 발전기의 성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조삼연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BNT기반 완화형 강유전체 세라믹스의 거대 변형 거동을 이용한 웨어러블 에너지 수확기 제작이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구급기술 경연대회 대비 훈련 매진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오는 18일 실시하는 전라북도 구급기술경연대회를 대비해 집중훈련 및 막판 스퍼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구급기술경연대회에는 도내 13개 소방서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구급대원의 가장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능력평가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남원소방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분배, 약물투여, 전문기도기 삽관, 팀원 및 지도의사 간의 소통법 등 실천과 같은 훈련에 힘을 쏟았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이번 대회 준비를 통해 구급현장에서 많은 국민을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수당재단 순창군 훈명재서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11일 쌍치면 훈명재에서 수당재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생은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중 성적 우수자 20명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이날 수여식은 김재훈 훈명재 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신병기 부군수의 환영사, 고당 김중희 선생과 김성수 필암서원 도유사의 축사, 백은 김상열 회장의 격려사로 시작하여 장학증서 수여식 하서 김인후 선생 및 훈명재를 소개하고 훈명재 선비길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수당재단(이사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자인 수당 김연수 회장이 인간중심의 원칙 아래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1968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순창군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0명에게 고등학생에게 총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병기 부군수는 "하서 선생의 뜻이 살아 숨쉬는 훈명재에서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이 뜻을 되새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수당재단 김윤 이사장과 삼양그룹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청용면 황호성 씨, 경로당에 200만원 기부

청용면 평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황호성 씨(88)가 어려운 생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200만원을 기부하여 이웃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호성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던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어 회원들 식사에 사용하길 바라며 평지 아버지 경로당과 평지 어머니 경로당에 각각 100만원씩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의 기부는 기초생계급여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한 사례로 그 의미가 더해졌다.

청용면 평지마을에 거주하는 한경희 씨는 "본인의 힘든 생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이웃을 위하는 마음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규영 청용면장은 "황호성 님의 값진 기부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우수 사회복지무요원 15명 선발·표창

덕진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위한 선발... 그간의 노고 격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우수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복지부서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사회복지무요원 15명에 대한 표창으로 사회복지무요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각종 행정과 최일선의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을 격려하며, "행정의 보조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고 건강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길 바라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복무 중에도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발전적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해서 성실히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소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청은 반기별로 연 2회, 성실복무로 귀감이 되는 모범 사회복지무요원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표창을 받은 우수 사회복지무요원에게는 5일간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제자 사랑 장학금' 500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제자 사랑 장학금으로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자 사랑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관광경영학과 교수 5명이 각각 1천만 원씩 약정해서 기부하는 장학금이다.

그동안 관광경영학과는 외부 장학금을 매년 1천만 원 이상 유치해 왔으며, 이렇게 모인 장학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학생들과 학과 봉사 학생들에게 학기별로 지급해왔다.

류인평 학과장은 "스승의 날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더 확대해 교수들도 제자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장학금이 스승과 제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학년 신입생들이 모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직접 작성한 '스승의 은혜 감사 편지' 우체통 이벤트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직접 사연을 전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고흥산업과학고 산학협력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11일 뉴테크AI실에서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력양성과 기술을 보유한 드론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정삼모 총장 문용규 부총장, 조용호 선교지원처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김수현·임진택 교수와, 최정렬 교장 강대진 교무부장 등 관공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드론 관련 현장중심의 맞춤형 실습교육 및 중등직업교육, ▲산학협력을 통한 관련분야 봉사협력 ▲강의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삼모 총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우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또 중등직업교육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졸업자의 취업률 향상 및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



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렬 교장은 "전국 최상위 취업률을 자랑하는 전주비전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도 드론분야의 우수인력 양성 등에 따른 상호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자연초 학부모,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주자연초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아버지인 박정현씨가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서 사업을 하는 박씨는 사업 초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이번 기탁을 결심했다.

한편 전주자연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발전기금의 사업명을 '소유장학금'으로 정하고 학생 장학금과 어려운 학우들기 등에 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

신순자 교장은 "자녀와 학교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졌다"면서 "아버님의 뜻에 따라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중화산동 적십자봉사회, 어르신 중식·밀반찬 나눔

전주시 중화산동(동장 유은례) 적십자봉사회(회장 지은숙)는 11일 관내 홀로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삼계탕 대접 및 밀반찬 전달하는 봉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겁게 소통하고자 마련했으며,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적십자봉사회는 제철 열무김치와 페리고추볶음 등 직접 만든 밀반찬도 전달했다.

지은숙 회장은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제철 열무김치와 페리고추볶음 등 직접 만든 밀반찬을 전달하면서 마지막까지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학연구센터-전주대 고전학연구소, 협약 체결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전북학연구센터가 지난 10일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와 학술·연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학연구센터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의 지역학 네트워크 형성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변주승 한국고전학연구소장, 전종운서정호, 변은진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등과 권혁남 전북학연구센터장,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 권이선 전문연구원, 서국선 위촉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지식정보, 인적자원 등의 교류,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지역 학술연구단체와 협력해 전북 도내 전북학 발전과 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혁신동, 이웃사랑 농촌체험·소통의 장 추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동장 이성순) 통장협의회(회장 박재란)는 지난 10일 농촌체험 활동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통장과 주민센터 직원 등 15명이 참여한 이번 체험활동에서 참가자들은 관내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인근 유흥지에 고무나무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심은 고무나무는 오는 10월에 수확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란 통장협의회장은 "농촌체험을 통해 통장협의회가 화합하며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평화동 지시협, 매월 독거어르신 생일케이크 전달

전주시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귀덕)는 11일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보는 생일파티 행사를 진행했다.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0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20명을 선정해 매월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생일을 맞이한 80대 조모 어르신은 "매년 쓸쓸하게 혼자서 생일을 맞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생일상을 차려주니 정말 기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귀덕 위원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찾아가 생일을 축하하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과 이웃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